

자영업자 울린 ‘노쇼’에…시민들이 감동의 ‘완판쇼’

샌드위치 260개 허위 예약 피해…가게 주인이 SNS에 “폐기 직전” 호소
곳곳 문의 속 너도나도 주문…주인 “도와준 시민 덕분에 해결” 감사 글

“노쇼”가 발생해 260개 모두 폐기하기 직전이다. 제발 살려달라.”

지난 1일 스트레드,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주시 서구 A 베이커리카페 업주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샌드위치 수백개가 만들어져 매장에 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샌드위치가 주인이 전한 속사정은 이었다. 지난 달 27일 한 민간업체를 대신해 샌드위치 구매를 위해 연락했다는 고객은 전화를 걸어와 260개의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경기 침체로 장사도 잘 되지 않던 상황에서 대량 주문을 받은 반가움에 정성껏 메뉴를 준비했는데 정작 당일인 1일 구매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은 것이다.

업주는 확인 과정을 거치고 계약서도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속상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제쳐놓고 기껏 만들어 좋은 샌드위치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암담했다.

미니 샌드위치 260개를 통째로 버릴 상황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에 4200원짜리 샌드위치를 원가인 2600원에 판매하겠다며 SNS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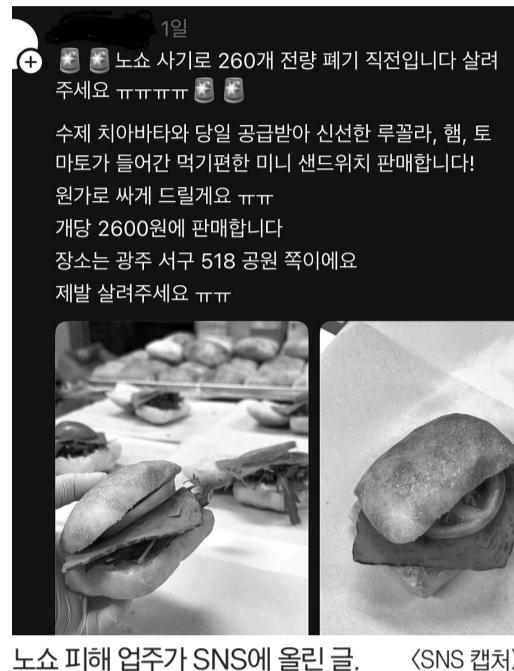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글이 올라간 뒤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광주 시민들은 이웃 가게 주인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온정’을 전했다.

SNS 글을 본 시민들은 “어디로 가면 되느냐”며 가게로 달려와 샌드위치를 사갔고 광주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는 “택배나 배달주문으로도 가능하나”고 물어 왔다.

한 도시락업체 운영자는 샌드위치를 다량 구매해 “오늘 판매하는 도시락에 넣겠다”고 구입 의사를 전해 왔다. 한 시민은 “지금 몇개가 남았나. 아동복 지시설에 퀵서비스로 보낼 수도 있느냐”고 문의한 뒤 샌드위치 10여개를 구입해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고, 담당자와의 문자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260개 샌드위치가 반나절도 안 돼 ‘완판’되면서 업주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완판 이후로도 SNS에는 “가까우면 대여섯개는 사갈텐데 아쉽다. 고생했는데 너무 허무하겠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업주는 “노쇼 문제로 처리하기 곤란했던 제품들을 마음 좋은 분들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해결하게 됐다”며 “마음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



노쇼 피해 업주가 SNS에 올린 글. 〈SNS 캡처〉

했다.

또 노쇼를 당한 점주를 대상으로 조언과 위로를 전한 지역민들에 대해 “조언을 깊게 새겨 다음엔 같은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알아서 잘 하라’는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돋는 방안을 찾아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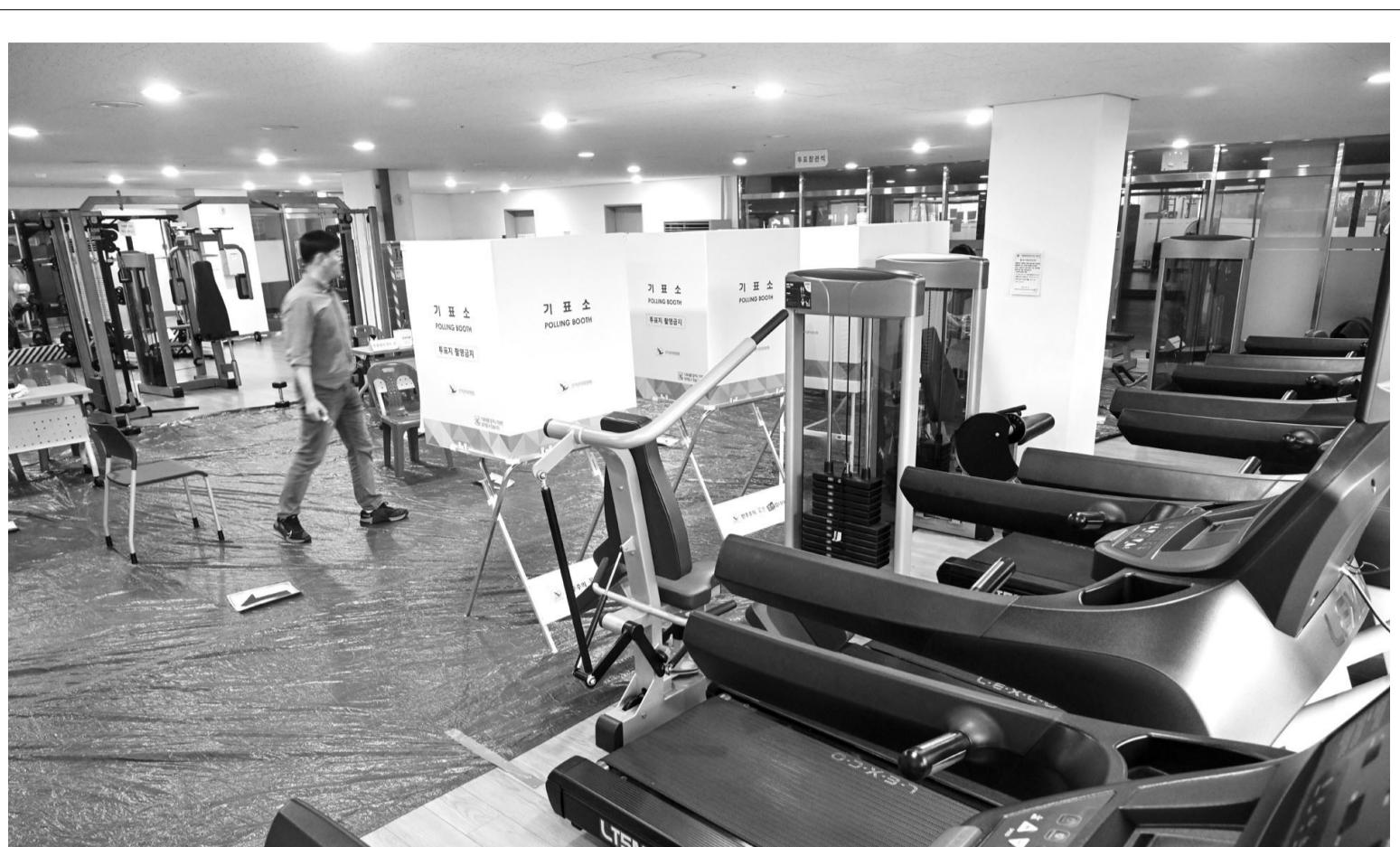
업주는 구매문의를 한 업체측과 2일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해당 업체의 고의성 등을 재확인 중이다.

SNS에는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지역 자영업자들로부터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가 잇따르기도 했다.

한 자영업자는 SNS 맷글을 통해 “예약취소를 당하면 소상공인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며 “나도 ‘노쇼’ 당해서 전량폐기할 뻔 했다가 주변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단골 고개님들이 도와주셔서 재료비 손해는 면했다”고 했다.

또 “예약건이 들어왔는데 선입금을 요구하기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힘들다”, “자기가 다 속상하다. 안 그래도 경기 힘든데 노쇼시키는 진짜 없어져야 한다”, “요즘 노쇼피해가 너무 많다. 단체주문은 의사부터 하셔야한다” 등 자영업자의 입장에 대한 공감과 조언도 이어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광주시 동구 산수2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에 투표소가 차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비엔날레전시관·피트니스센터…오늘은 투표소 입니다

광주 곳곳 이색 투표소

윤상원기념관·태권도장 등 다양한 지역 문화시설 지정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투표소에는 색다른 공간이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투표소로 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지역 문화시설을 지정했다.

투표소는 보통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교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마련되고, 공

공장소를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민간 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되기도 한다.

가장 눈에 띠는 곳은 지난해 4월 광산구 천동마을 윤상원 열사 생가 근처에 개관한 ‘윤상원기념관’으로 올해는 투표소로 변신해 임곡동제2투표소로 지정됐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 1층 거시기홀도 지난해 총선 때 처음 투표소로 지정된 후 북구 용봉동제6투표장으로 변신했다.

또 폐교를 지역 공동체 활동장으로 재탄생시킨 ‘빛고을공예창작촌’도 남구 대촌동제2투표소로 마련됐다.

아파트 상가 내 민간시설도 투표소로 변신했다.

남구 중흥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백두태권도가 진월동제5투표소로 바뀌었고, 학운동제3투표소는 아파트 후문 상가에 있는 ‘광주신체교정원’에 마련됐다. 남구 라인하진1차아파트 실내 주차장 1층에 방림2동제2투표소가 마련된 것도 눈에 띈다.

동구 동명동제2투표소는 대광새마을금고 본점 대강당, 1투표소는 아이플렉스 광주 컨퍼런스룸에 마련됐다.

광산구 본랑동제2투표소인 본랑학생야영장 1층 안전체험관에서도 투표할 수 있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회의실에 서구 농성2동제1투표소가 마련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대선 앞두고 선거폭력 2.2배, 벽보 훼손 3배 증가

전국 선거사범 검거 1891건

20대 대선보다 많아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에서 선거사범으로 검거된 건수는 총 1891건으로, 지난 20

대선 검거 건수(1792건)를 넘어섰다.

검거 인원은 2100명이며, 이 중 70명이 경찰에 송치됐다.

5대 선거범죄로 검거된 인원 수는 각각 허위사실 유포 168명, 금품수수 13명, 공무원선거관여 29명, 선거폭력 110명, 불법단체동원 2명 등이다.

이 중 선거폭력사범은 20대 대선에 비해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벽보 훼손 건수

도 1619명으로 지난 대선 대비 3배 증가했다.

경찰은 또 대선 후보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공유한 30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 수는 갈수록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739명이 입건되었으나, 2017년 19대 대선 878명, 2022년 20대 대선 2614명으로 늘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가족 4명 탄 승용차 진도 앞바다 추락

목포해경, 해상 수색 작업

진도군 앞바다에서 고등학생 등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해상에 추락했다.

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팽목리 진도항에서 광주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 A군 등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물에 빠졌다.

해경은 2일 오후 2시 30분께 A군의 고등학교 교

사로부터 “A군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치 추적을 하다 A군 가족 소유 차량이 해상에 추락하는 CCTV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차량 내에는 A군을 포함한 가족 4명이 모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추락 위치를 특정하고 진도항 인근에서 잠수 및 해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일 오후 7시 현재 발견된 생존자는 없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 시킬
주역을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위하여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